

국회의장 3자 원내 대표 회의 후 언론 브리핑

입력 2020.12.22



추안 릭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12월 22일 오후 2시 20분 국회의사당 3층 국회의장실에서 3자 원내대표 회의 후 화해 위원회 지명 진행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했다. 내각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 차이찬 창몽콜 육군 대장, 트엣퐁 차이난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으며 여당에서는 서라앗 끄린빠툼 품자이타이당 의원 및 니룣 순턴레카 파랑쁘라차랏당 의원을 제시하여 상원은 23일에 공식적으로 고려할 예정이었다. 한편 야당과 반정부 시위 측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. 이 선정 위원회의 구성되는 전문가 지명은 이번 24일에 고려할 랏차팍대학교 외에는 거의 완성되었다.

또는 국회의사당에서 사람이 꽉찬 공간이어서 이 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(코로나 19) 감염증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. 12월 23일에 하원 회의를 진행하여 1-8 긴급 사항, 사탕수수 설탕 법률안 통과 논의 하여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 있다. 다음은 나컨타이, 파약폼피사이, 우엥빠빠우 지방 법원 지위를 높이는 법률안, 행정 법원 설정 및 행정 법원 절차 법률안을 심의했다. 게다가 제 14 긴급현안

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심의하여 모든 의제가 완성되면 24 일 및 25 일 의회일정을 잠정 중단해서 내년 1 월에 보상 의회를 열 예정이 있다.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만 회의를 허락하며 참석자 수의 제한, 회의실 청소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 조치를 엄격히 마련하도록 진행한다.

기자/편집: 태국하원사무처

번역: 완위몬 마우탑,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

https://www.parliament.go.th/ewtadmin/ewt/202006/view_news.php?n_id=75118